

NH투자증권, 디지털 업무혁신 구축 나선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전방위적 MOU 커뮤니케이션 디지털화·AI 기술 확보

NH투자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혁신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NH투자증권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및 디지털 워크플레이스(Digital Workplace)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 및 텍스트 분석(S TT·TA)과 같은 AI 기반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우선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개발중인 기업용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NH투자증권의 핵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디지털화한다. 임직원 간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돕고 기존 업무시스템과 연계한 확장 기능을 개발한다.



NH투자증권은 27일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혁신 및 AI 활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왼쪽)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백상업 대표이사(오른쪽)와 업무협약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AI 기반의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에서도 협업해 디지털 업무 혁신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우수한 플

랫폼 및 콘텐츠를 보유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전방위적인 업무 파트너가 돼 매우 기쁘다"며 "NH투자증권의 금융 지식과 노하우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재계, 피해 극복 ‘통큰 기부’ 행렬

포스코·현대중공업·CJ그룹 확산방지 위해 성금 기탁 대구·경북에 생필품 지원

재계가 코로나19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7일 코로나19 국내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코로나19 최대의 피해지역 중 하나인 경상북도에 본사 및 다수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 및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호기금은 포스코 40억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10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출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의료구호물품, 자가격리자 생필품, 방역 및 예방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1%나눔재단을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에 본사를 둔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 지주 로봇사업부문)도 대구·경북지역에 써달라며 2억원을 이 협회에 전달했다. 그룹 차원에서 총 12억원을 내놓은 셈이다.

CJ그룹도 신종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구호활동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다. CJ그룹은 이와 별개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진·격리 환자·취약계층 식사를 위해 햇반컵밥 등 가정간편식 1만5000개와 마스크·항균물티슈 1만개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은 다음달 한 달간 대구·경북 주민에게 개인 택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호성그룹도 27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원과 의료용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성은 대구와 경북지역 코로나19 구호현장에 의료용 장갑 5만켤과 손소독제 3000개 등 의료용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용 기자 juk@

두산연강재단 초·중·고·대학생에 장학금 20억원 지원

환경 어려운 학생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

두산연강재단은 올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6일에는 이 가운데 먼저 대학생 158명에게 10억 2300만원을 전달했다.

두산연강재단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78년에 설립됐으며 설립년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하고 있다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가고, 장차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28일 (음 2월 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바쁜 가운데 한가한 틈을 내 자녀 돌보기. **48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뼈다귀를 산다는 표현. **60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72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84년생** 일이 순조롭다.
- 37년생** 옛날에 큰 영화를 누렸으나 부도난 상태에 무슨 소용. **49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6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신중. **73년생** 오후에 큰일이 계야. **85년생** 일에 파묻혀 정신이 없다.
- 38년생** 두루 베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50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할 터. **62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74년생** 명쾌하고 신뜻한 하루. **86년생** 뒷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 39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63년생** 직장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75년생** 붉은 색이 행운을. **87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 40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52년생** 배우자의 의견 존중. **64년생** 치료와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날을 잡도록. **76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88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 41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53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65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77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달려간다. **89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할.
- 42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54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66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78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는 일부터 해 나가보라. **90년생** 분수에 맞게 물류를 가져오라.
- 43년생** 의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55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67년생** 이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79년생** 막혔던 업무가 해결되는 날이라 감사. **91년생** 금전 문제로 종일토록 우울하다.
- 44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에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56년생** 일이 계속 막히니 집안 하수구를 살펴보자. **68년생** 고생한 성과가 좋아 재물이 들어온다. **80년생** 참외밭을 지날 때 신을 고쳐 신지 마라. **92년생** 시기성조라 인내심을.
- 45년생** 재산 나눠주고 부부끼리 동병상련(同病相憐). **57년생** 모서어 소란스럽다. **69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1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93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 46년생** 자기 나도 피곤하니 좀 쉬도록 할 것. **58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오도록. **70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82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94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 47년생** 의지할 데 없는 노년 신세. **59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71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83년생**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심삼 은덕. **95년생** 공부하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김상희의四季

조울증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정신적 특질 중의 하나가 좋고 싫어함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전통적 여인의 미덕은 '참음'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화병'은 대한민국 여인네들의 거의 집단 정신병리학적 증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정확지는 않겠으나 정신분석학에서 '화병' 또는 '울화병'이라는 증세는 한국의 고유한 집단 감정 병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원인이야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어찌 보면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부재와 혼란 남과의 비교나 소용 부재 등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 본다. 어떤 경우는 우울증과 들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느 순간 한없이 맥이 빠지거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반짝하며 계속 떠들며 포부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다 다시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멍해지며 원망을 내뿜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일종의 호르몬 작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마음이 우울함을 향하는 순간 바로 정신이 물질에 작용한다.

감정 부분을 관장하는 부신피질이나 전두엽에 신경 자극을 주어 관련 호르몬의 분비에 바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고 싶다. 기실 에너지의 작용 즉 오행의 상호 관계와 대운과 세운 그달의 운기 등의 파장 형 총과 해 합을 이루면서 주고받는 영향 속에 발현되는 에너지 기운의 결과물 또는 작용 과정이기도 하다. 우울해하거나 기분이 반짝하거나 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 기질이니 수시로 밝음을 가까이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습관만 가져도 치유될 수 있는 마음 현상이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3	1	2	9	4	5
2	9	4	5	8	1
4	5	1	8	2	9
1	8	9	2	5	4
5	4	8	1	9	2
9	2	5	4	1	8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빨간 브라운 저** epress | 15,000원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8호